

# “제약산업, 국가 지원 뒷받침때 2035년 수출 100조 달성 가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신년 간담회

신약기술 수출성과 눈앞 핵심미래성장동력 육성 등 정부 적극적 지원 표명해야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1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이 지닌 국부창출의 잠재력이 1400조원 규모의 세계 제약시장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약산업이 국가주력산업임을 선언하고, 건전한 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강력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에서 ‘제약산업, 대한민국의 미래다’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원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은 화산폭발이 터지기 직전이다. 화산폭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마그마가 움직이고 주변의 작은 화산들에서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난다”며 “국내 제약산업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신약기술 수출성과가 국내 제약산업이 대폭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약산업의 대도약

실제 산업계의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정부의 지원은 8%에 불과하다”며 “국산 신약에 대한 낮은 성과보상 체계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산업 현장의 체감도는 냉골”이라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협회가 100개 제약사를 자체 조사한 결과 2030년까지 개발 예정 파이프라인이 953개에 달한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내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국부를 창출하고,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의 R&D 예산 중 40%를 제약 부문에 투자하는 벨기에, 연간 1000개 산학협력 프로젝트 연구비용 50%를 지원하는 스위스 등 다양한 사례를 들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원 회장은 “정부의 지원과 제약산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노력 병행이 병행된다면 2025년 글로벌 매출 1조 국산 신약 탄생, 2030년 매출 10조 국내 제약사 출현, 2035년 의약품 수출 100조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정부의 지원과 제약산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노력 병행이 병행된다면 2025년 글로벌 매출 1조 국산 신약 탄생, 2030년 매출 10조 국내 제약사 출현, 2035년 의약품 수출 100조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비상상황실 운영·인력 증원·본사 직원 투입 택배업계 “설날 만반의 준비”

CJ대한통운

전국 터미널에 ‘휠소터’ 설치 한진

특별수송차량 추가 운영

롯데글로벌로지스

콜센터·현장 인력 50% ↑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서울북한물류터미널에서 택배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택배업계가 2월5일 설이 바짝 다가오면서 ‘배송전쟁’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업계 따르면 올해 설 명절 택배 물동량은 평소보다 15~20%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오픈마켓 등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유통업계의 대대적인 설 이벤트 역시 택배량을 더욱 늘리는 요인이다.

특히 업계는 하루 최대 약 200만 박스가 몰릴 것으로 관측되는 오는 28일이 이번 설 배송시간 중 가장 분주한 하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이미 지난 16일부터 설 명절 특별수송기간에 돌입해 2월 15일까지 약 5주간 바쁜 일정을 보낸다. 한진은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1일부터 2월8일까지를 각각 특별 배송기간으로 정했다.

업계는 올해가 기해년 황금돼지해여서 설을 맞아 돼지고기 선물세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명절선물도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 여행량이 늘어나고 수산물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굴비, 갈치 등의 선물세트 배송량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한 개인 택배 접수는 18일까지만 받는다. 이후엔 2월18일부터 다시 접수한다. 보낸 택배나 받을 택배가 있는 고객들은 CJ대한통운 택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택배 접수 또는 상품 구매시 받은 송장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CJ대한통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자들이 전국 물동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외 다른 택배사의 물품도 배송 추적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현재까지 전국 156곳의 택배 터미널에 설치한 ‘휠소터(Wheel Sorter)’가 급증하는 물동량 처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CJ대한통운이 전국에 운영하는 178개 터미널 가운데 88%에 휠소터가 설치돼 있다. 휠소터는 소형 바퀴(휠)를 통해 택배 상 물세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명절선물도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 여행량이 늘어나고 수산물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굴비, 갈치 등의 선물세트 배송량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본사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전국의 물동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배송지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정식 배송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콜센터 상담원 등 필요 인력도 20% 추가 투입키로 했다.

한진도 차량 확보 및 분류인력 증원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수송차량 추가 운영

뿐만 아니라 고객 배송에 앞서 터미널 간 상품을 이동하는 간선차량이 제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정시성도 강화키로 했다.

본사 직원도 택배현장에 투입해 분류작업, 집배송 및 운송장 등록업무 등도 지원한다.

한진 관계자는 “명절 선물 배송에 인력 및 장비를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택배의 고객센터 및 인터넷 예약 접수는 특별배송기간에 이용이 제한된다”면서 “하지만 이마트24, 홈플러스365+, IGA마트, 새마을금고 등 취급점을 통한 개인택배 접수는 28일 14시(취급점별 마감시간 상이)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1000여 집배송에 대한 긴급 배송지원을 위해 1500여 대의 택배차량을 추가 투입하고 본사 직원 3백여 명도 현장 지원에 나선다. 물류센터 분류인력, 콜센터 상담원도 각각 50% 늘리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택배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일시에 사용해야 하는 상품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주문해야 한다”며 “홈쇼핑, 온라인몰 등에서 주문할 때에는 판매처에서 공지한 배송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받는 사람의 일정을 확인하고 가능한 연락처를 모두 적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키오스크로 인건비 고민 날린다

프랜차이즈업계

무인결제시스템 도입 증가세 고객편의 증대·운영효율성 ↑

지난해 프랜차이즈업계 화두는 인건비 상승이었다.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각도로 인건비 절약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리아 키오스크 /롯데리아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 835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 인상 인상됐다. 프랜차이즈 점주 사이에서 ‘인건비’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키오스크 도입을 검토하는 외식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맥도날드에서도 키오스크 도입 매장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15년 키오스크를 도입한 맥도날드는 현재는 약 420개 매장 가운데 약 250곳에서 키오스크를 운영 중

신경을 받기 시작했다.

생과일주스 전문점 주씨는 2017년 말부터 가맹점에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설치 매장 수는 50여개로 현재 100여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영 중이다. 주씨 측은 올해 키오스크 설치 매장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약 100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맘스터치는 전국 1130여개 가맹점 가운데 20여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맘스터치는 키오스크가 고객 편의 증대와 가맹점주들의 운영 효율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타진한 후 점차적으로 도입을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스테이크 전문점 소데스네는 매장에 테이블 오더 시스템과 더불어 카카오페이, 위챗페이 등 다양한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박인용 기자

# 獨 ‘발레아’, 롯데마트·롭스서 만난다

롯데 주요 유통계열사서 판매

롯데마트와 롭스가 독일 드럭스토어 1위 업체인 dm사의 헬스 &뷰티 전문 PB 브랜드 ‘발레아

(Balea)를 본격 론칭한다.

이번에 론칭하는 ‘발레아’는 핸드크림과 풋크림, 앰플 등 기초화장품 라인을 중심으로 탁월한 품질과 가성비로 글로벌 브랜드 ‘니

베아’와 더불어 독일 국민이 가장 선호하고 인정받는 브랜드다.

이번 계약을 통해 ‘롯데마트’와 ‘빅마켓’, ‘롭스’는 물론 ‘롯데슈퍼’와 ‘세븐일레븐’ 등 롯데그룹 주요 유통계열사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dm사의 PB를 만나 수 있게 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옴50안경, 연신내점 신규 오픈기념 특가 세일

누진다초점렌즈 70% 할인 등

옴50안경이 연신내점 신규 오픈을 기념해 특가 세일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옴50안경은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를 60~90%에 선보인다. 또한, 한 달간 효도 선물 누진 다초점렌즈를 60~70% 특가로 판매한다.

자외선 차단용 및 선글라스 대용으로 인기가 높은 아도모스 벨런스 1.50 제품은 12만9000원에 판매하며, 수입브랜드 누진 다초점렌즈 아지오 1.50은 9만9000원에 선보인다. 청광차단 안경렌즈



옴50안경 연신내점. /옴50안경

선보이고, 체험단을 함께 모집한다.

옴50안경은 공장직거래 시스템을 통한 대량구매로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하는 안경 프랜차이즈 업체다.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거품을 없애면서 안경은 ‘고가’라는 인식을 바꾸고 있다.

옴50안경 측은 “거품 간경 시장에서 판매가를 낮추고, 안경원의 문턱을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최근 젊은층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엄청난 할인율을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1.50중굴절은 1만원, 고굴절비구면은 2만2000원, 1.67 초고굴절비구면은 2만9000원이다.

또한, 한 달용 컬러 콘택트렌즈 사인팝은 1만5000원에 1+1으로